

2. 가구 내 미디어 이용 지침 유무가 어린이 및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윤화(부연구위원, ICT통계분석센터)
차보선(연구원, ICT통계분석센터)

● 분석 데이터 및 분석 목적

- 한국미디어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동일 표본 추적 조사로 2013년에는 4,381 가구 및 10,464명 개인, 2014년에는 4,363가구 및 10,281명 개인을 대상으로 미디어 기기 보유 현황, 서비스 가입 및 지출 현황, 미디어 활용 현황, 미디어 다이어리 등을 조사함
- 본 보고서는 2013년, 2014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 중에서 가구 내 미디어 이용 지침 유무에 따라 어린이 및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만 6세 이상 만 19세 이하 개인과 그들이 속한 가구로 그 분석대상을 제한함
- 2013년의 경우, 가구 내 미디어 이용 지침은 크게 TV, 인터넷, 게임 이용 제한으로 구분하여 지침 유무와 지침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2014년에는 스마트폰 이용 제한 내용이 추가됨

● 가구 내 미디어 이용지침 현황

- 2014년 기준 가구 내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미디어 이용 지침 유무를 살펴보면, TV 이용 지침은 29.9%, 인터넷 이용 지침은 31.5%, 게임 이용 지침은 28.5%, 스마트폰 이용 지침은 22.9%로 나타남
- 이는 전년도인 2013년 이용지침이 있다고 답한 가구 비중에 비해 TV는 2.2%p, 인터넷은 4.2%p, 게임은 6.3%p 감소한 수치임
- 지침방식에 있어서는 TV,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등 조사한 모든 매체에 대해 총 이용 시간을 통제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TV 이용 지침방식으로 총 이용시간 통제보다 프로그램 내용에 따른 통제가 과거에 더 선호 되었으나, 이 또한 다른 미디어와 같이 총 이용시간을 통제하는 쪽으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임

2. 가구 내 미디어 이용 지침 유무가 어린이 및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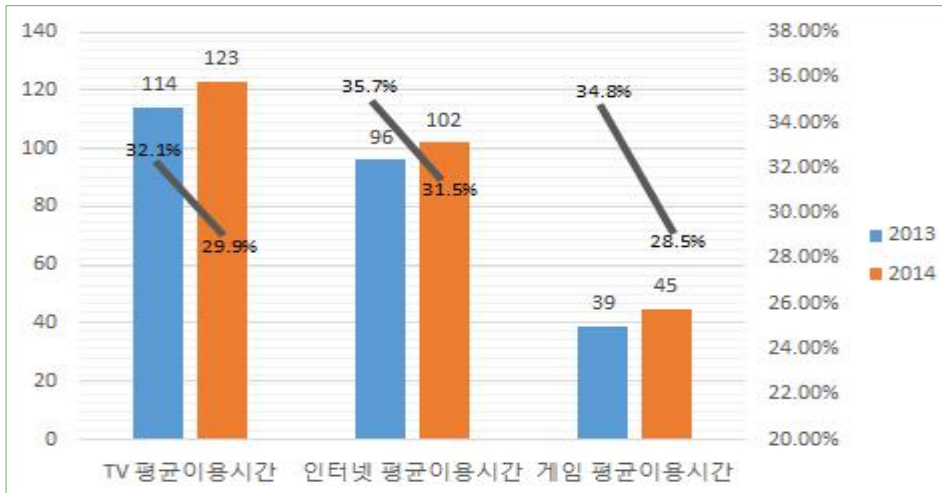
〈표 1〉 가구 내 미디어 이용 지침 현황(중복응답)

구분		결과(%)			
		2013년	2014년	증감률	
TV	TV 시청에 대한 지침여부		32.1%	29.9%	-2.2%p
	지침내용	채널별 비밀번호 잠금 설정	13.5%	11.0%	-2.5%p
		TV 총 시청시간 통제	25.0%	29.2%	4.2%p
		TV 시청 시간대별 통제	30.0%	28.9%	-1.1%p
		프로그램 내용에 따른 통제	30.5%	29.1%	-1.4%p
		기타	0.9%	1.8%	0.9%p
인터넷	인터넷 이용에 대한 지침여부		35.7%	31.5%	-4.2%p
	지침내용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19.1%	16.4%	-2.7%p
		인터넷 총 이용시간 통제	26.6%	32.2%	5.6%p
		인터넷 이용 시간대별 통제	21.5%	20.3%	-1.2%p
		사이트 성격에 따른 통제	17.9%	16.3%	-1.6%p
		PC방 출입통제	13.9%	14.1%	0.2%p
기타	1.0%	0.8%	-0.2%p		
게임	게임에 대한 지침여부		34.8%	28.5%	-6.3%p
	지침내용	게임 사이트 접속차단 프로그램 설치	10.7%	9.4%	-1.3%p
		게임 총 이용시간 통제	28.6%	34.5%	5.9%p
		게임 이용 시간대별 통제	19.0%	19.1%	0.1%p
		게임 성격에 따른 통제	22.4%	21.1%	-1.3%p
		전자오락실, 게임방, PC방등의 출입통제	18.3%	15.2%	-3.1%p
기타	0.9%	0.6%	-0.3%p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대한 지침여부		-	22.9%	-
	지침내용	스마트폰 이용 차단프로그램 설치	-	11.2%	-
		스마트폰 총 이용시간 통제	-	51.4%	-
		스마트폰 이용 시간대별 통제	-	10.4%	-
		애플리케이션 성격에 따른 통제	-	23.8%	-
		기타	-	3.2%	-

- 주: 1) 만 6세 이상 만 19세 이하 가구원이 속한 가구 수 2013년 1,375가구, 2014년 1,597가구
 2) 가구 내 TV 이용 지침이 있는 가구 수 2013년 441가구, 2014년 478가구
 3) 가구 내 인터넷 이용 지침이 있는 가구 수 2013년 491가구, 2014년 503가구
 4) 가구 내 게임 이용 지침이 있는 가구 수 2013년 478가구, 2014년 455가구
 5) 가구 내 스마트폰 이용 지침이 있는 가구 수 2014년 366가구

- 연간 추이로 볼 때, 미디어 이용지침을 가진 가구는 감소하는 반면, 어린이 및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시간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미디어 이용 통제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함
- TV와 게임의 경우 지침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 자녀의 총 이용시간은 유사한 반면, 2013~2014 추이로 볼 때, TV 이용지침 보유 가구율이 2013년 32.1%에서 2014년 29.9%로 2.2%p 감소하면서 총 이용시간이 9분 증가였고, 게임은 이용지침 보유 가구율이 34.8%에서 28.5%로 6.3%p 감소하면서 총 이용시간은 6분 증가함

[그림 1] 2013~2014 미디어 이용지침 보유 가구율과 자녀의 미디어 이용시간
(단위: 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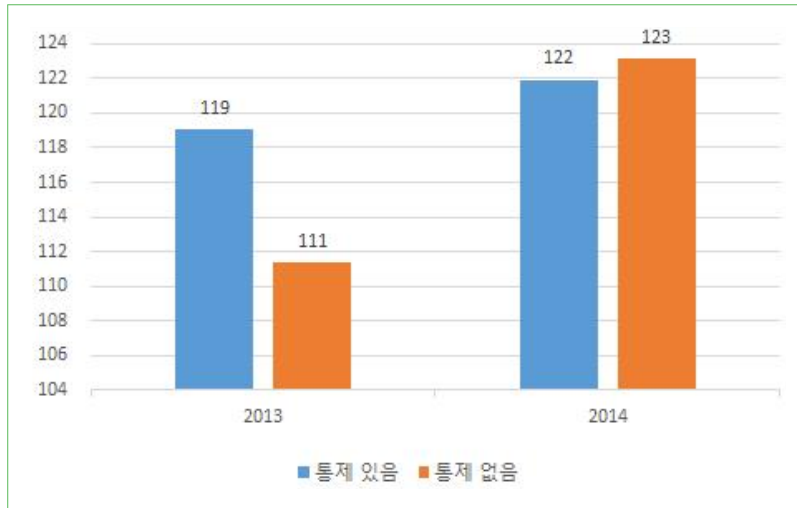
● 미디어 이용지침 유무에 따른 어린이 및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시간 변화

- 어린이 및 청소년의 사용자 기준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지상파 TV방송, 비지상파 TV방송, 종합편성채널 TV방송, VOD 포함)은 2013년 1시간 54분, 2014년 2시간 3분으로 나타남
- 어린이 및 청소년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은 2013년에는 통제가 있는 경우 1시간 59분, 없는 경우 1시간 51분으로 약간 감소했으나, 2014년에는 통제가 있는 경우 2시간 2분, 없는 경우엔 2시간 3분으로 나타나 통제 유무에 따른 시청 시간의 총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

2. 가구 내 미디어 이용 지침 유무가 어린이 및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그림 2] 가구 내 TV 시청 통제에 따른 자녀의 TV 시청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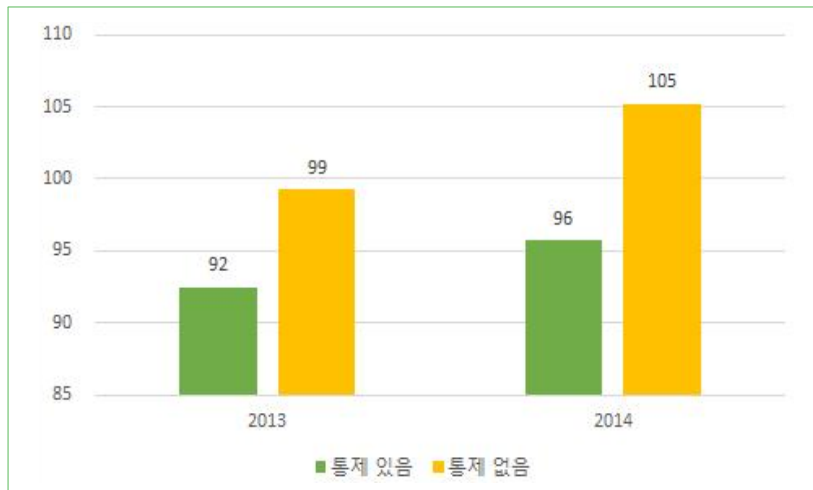
(단위: 분)



주: 만 6세 이상 만 19세 이하 자녀의 사용자 기준 TV시청시간(2013년 통제있음 646명, 통제없음 965명, 2014년 통제있음 531명, 통제없음 950명)

[그림 3] 가구 내 인터넷 이용 통제에 따른 자녀의 인터넷 이용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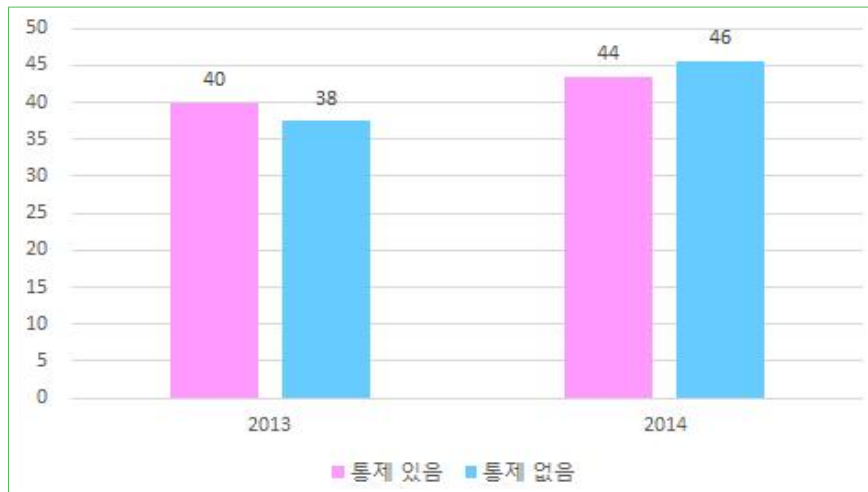
(단위: 분)



주: 만 6세 이상 만 19세 이하 자녀의 사용자 기준 인터넷 이용시간 (2013년 통제있음 698명, 통제없음 967명, 2014년 통제있음 573명, 통제없음 967명)

- 어린이 및 청소년의 사용자 기준 하루 평균 인터넷(유선인터넷,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무선 인터넷, 와이브로 서비스 이용) 이용시간은 2013년 1시간 36분, 2014년 1시간 42분으로 조사됨
- 인터넷 이용을 통제하는 경우 어린이 및 청소년의 하루 인터넷 이용 시간은 2013년 1시간 32분으로 통제가 없는 경우인 1시간 39분 보다 7.4% 낮게 나타났으며, 2014년은 통제가 있는 경우(1시간 36분)가 통제가 없는 경우(1시간 45분)보다 9.9% 낮게 나타남
- 어린이 및 청소년의 하루 평균 게임 이용 시간은 2013년 39분, 2014년 45분으로 조사됨
- 2013년 가구 내 게임 이용 통제가 있는 경우 어린이 및 청소년의 하루 게임 시간은 40분으로 통제하지 않는 경우(38분)와 유사하게 나타났고, 2014년 또한 통제가 있는 경우(44분)와 통제가 없는 경우(46분)에도 이용량에 큰 차이가 없었음

[그림 4] 가구 내 게임 이용 통제에 따른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
(단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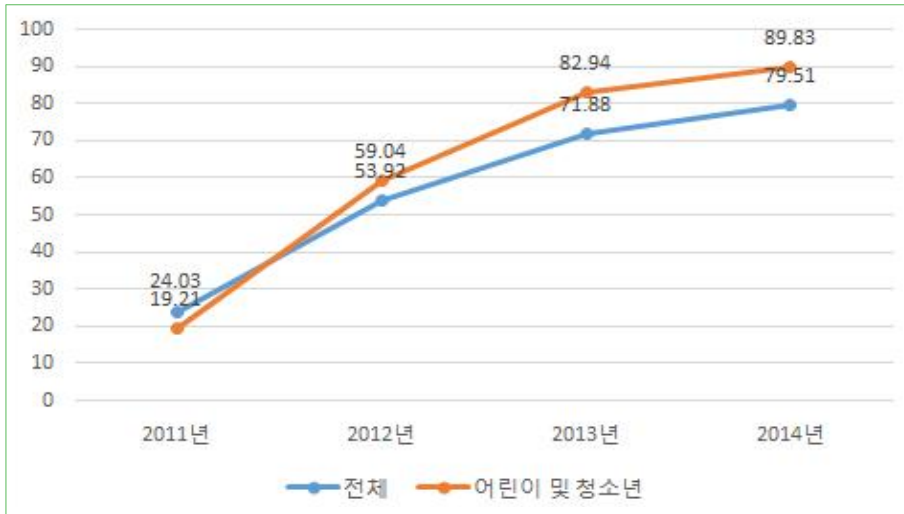
주: 만 6세 이상 만 19세 이하 자녀의 사용자 기준 게임 이용시간(2013년 통제있음 46명, 통제없음 22명, 2014년 통제있음 27명, 통제없음 40명)

- 전체 휴대폰 이용자 중 스마트폰 이용자 비율은 2011년 24.0%에서 2014년 79.5%로 급증했는데,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자 비율은 2011년 19.2%에서 2014년 89.8%로 더욱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 가구 내 미디어 이용 지침 유무가 어린이 및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그림 5] 스마트폰 이용 비중 추이

(단위: %)



- 어린이 및 청소년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조사됨
- 스마트폰 이용을 통제하는 경우 어린이 및 청소년의 하루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1시간 19분으로 통제가 없는 경우 1시간 20분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가구 내 스마트폰 이용 통제에 따른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단위: 분)



주: 만 6세 이상 만 19세 이하 자녀의 사용자 기준 스마트폰 이용시간 (2014년 통제있음 364명, 통제없음 837명)

●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만 6세에서 19세까지의 자녀가 있는 10가구 중 3가구 정도는 자녀의 인터넷과 TV, 게임 이용에 대한 지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서는 10 가구 중 2가구 정도만이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제한 및 지침이 있는 가구 비중은 전년도에 비하여 2%~6%p 가량 감소하고 있으며, 내용에 따른 통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가 용이한 이용시간 통제 방식이 선호되고 있어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통제 의지가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이 엿보임
-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자녀의 총 이용시간을 10%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TV, 게임, 스마트폰 등에 있어서는 이용지침이 자녀의 총 이용시간을 줄이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 성향(집착 정도)에 따라 이용지침 유무가 결정될 수 있는 요인이 있어, 가구 내 이용지침 유무에 따른 각 가구 자녀의 총 미디어 이용시간량 비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연간 추이로 볼 때, 미디어 이용지침을 가진 가구는 감소하는 반면, 어린이 및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시간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미디어 이용 통제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함
- 스마트폰의 경우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이용비중이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스마트폰중독, 집단따돌림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어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을 줄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섯다운제, 쿨링오프제 등 보다 적극적인 이용제한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